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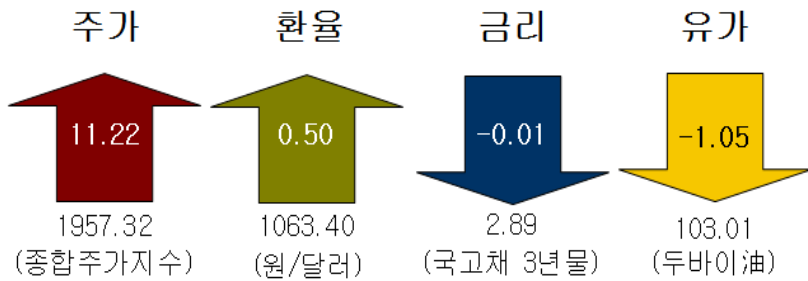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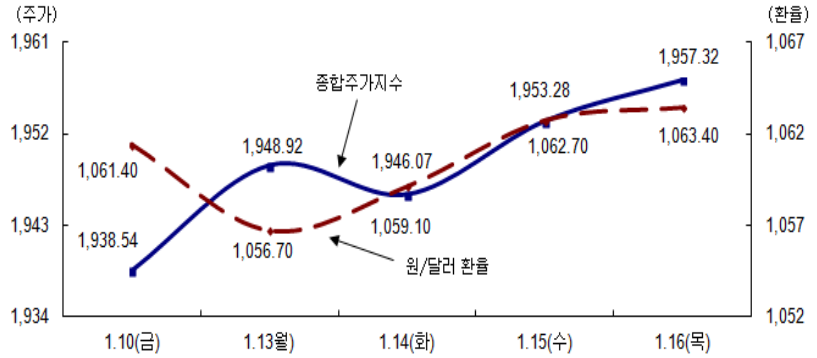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가계 재무상태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 부채 감소보다 자산 증가가 해법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0~1.16)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가계 재무상태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 부채 감소보다 자산 증가가 해법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5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 경제연구본부 : 박 덕 배 전문연구위원 (2072-6216, dbpark@hri.co.kr)

Executive Summary

□ 가계 재무상태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 부채 감소보다 자산 증가가 해법

최근 가계부채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 재무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통계청 등의 가계금융관련 조사에서 최근 3년 동안 가계 순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에는 소폭 감소했다. 구성요소별로 자산측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던 저축액 증가세가 주춤하고,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실물자산이 2013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부채 측면에서는 줄어들던 담보대출이 2013년 다시 확대되고 있다.

최근(2010~13년) 가계 재무상태 변화의 특징은 **첫째**, 저소득층의 순자산 감소가 크다. 1분위 가계의 경우 부채증가 보다 자산 증가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순자산이 1,440만원 감소하였으며, 반면 5분위의 순자산은 금융자산의 큰 폭 증가로 7,450만원 증가하고 있다. **둘째**, 연령별로 30세 미만 가구주 가계들의 자산증가가 어려운데다 전월세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보증금 부채가 늘어나면서 순자산 증가가 미미하다. **셋째**, 가구주 성별로 여자 가계의 자산 증가가 미흡하여 순자산 증가폭이 해마다 작아지고 있다. **넷째**, 입주형태별로 '자기집', '전세' 등과 달리 '월세 등 기타'의 경우 부채 증감은 거의 없으나 높은 월세 부담으로 인하여 자산 축적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종사상지위별로 상용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의 순자산 증가폭이 임시일용근로자 등 보다 크다. 특히, 자영업자의 순자산 증가폭이 상용근로자를 상회하고 있다. **여섯째**, 지역별로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비수도권'의 가계와 달리 부동산시장 침체를 겪고 있는 '수도권' 가계의 순자산 증가폭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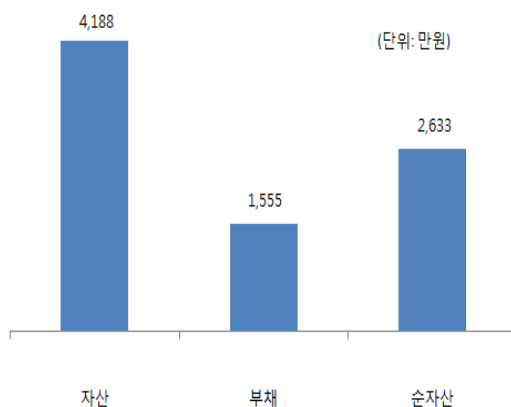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빠르게 회복되었던 가계 재무상태가 2013년에는 특히 **자산 증가의 어려움에 따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악화**되고 있다. 예컨대 저소득층일수록 가계 처분가능소득대비 총부채 비율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층(5분위)은 오히려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회복과 서민경제 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취약 계층과 수도권 가계의 재무상태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의 일자리창출 등을 통한 가계 실질소득 증가, 가계 자산·부채의 구조조정, 청년층의 사회진입 지원, 전월세 안정화 대책** 등이 시급하다. 그리고 분석 결과 취약 계층의 가계 재무상태 악화 현상은 대체적으로 부채증가 보다 자산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바,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선진국처럼 이들 계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개인개발계좌(IDA) 등 계층 특성에 맞춘 맞춤형 금융상품을 적극 보급할 필요가 있다.

1. 가계 재무상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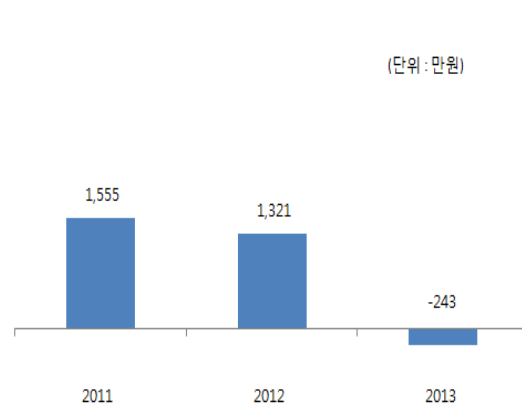
○ 가계부채 문제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던 가계 명목 순자산이 최근 감소하고 있음

- 국내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2013년 4분기 가계신용 1,000조원, 자금순환 개인부채 1,200조원 돌파가 예상
 - 한국은행 가계신용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3분기말 현재 991.7조원을 기록하고, 4분기 1,000조원을 돌파할 예상
 - 한편 자영업자 부채도 포함하는 한국은행 자금순환 개인부문 부채도 2013년 3분기말 현재 1,196.6조원을 기록하고, 4분기 1,200조원을 돌파할 예상
- 통계청등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가계 순자산은 2010~13년 가계부채보다 가계 자산의 큰 폭 증가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감소함¹⁾
 - 2010~13년 가계 자산은 4,188만원, 부채는 1,555만원 증가하여 순자산이 2,633만원 증가
 - 하지만 연도별로 큰 폭 증가하던 명목 순자산은 경기 및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2013년에는 오히려 243만원 감소
 - 가계 재무상태 악화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위하여 세부적인 분석 필요

< 누적(2010~13) 가계 자산·부채 증감 >



< 연도별 가계 순자산 증감 추이 >



자료 : 통계청(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공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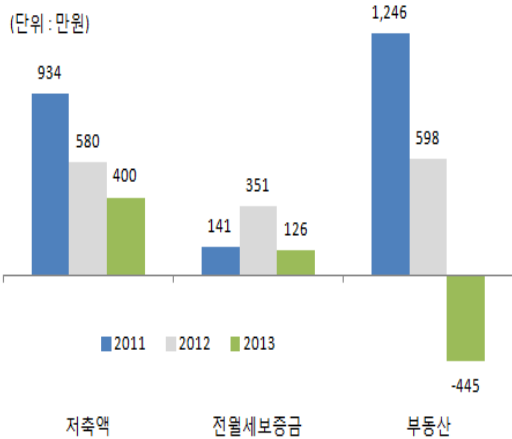
- 주 : 1) 2010년 2.28, 2011년 이후 3.31 기준.
 2) 2012년 신규 추가자산 항목을 조정.

1) 2010년부터 통계청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가계의 금융과 복지와 관련한 실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분석 개요에 대해서는 <참조 1>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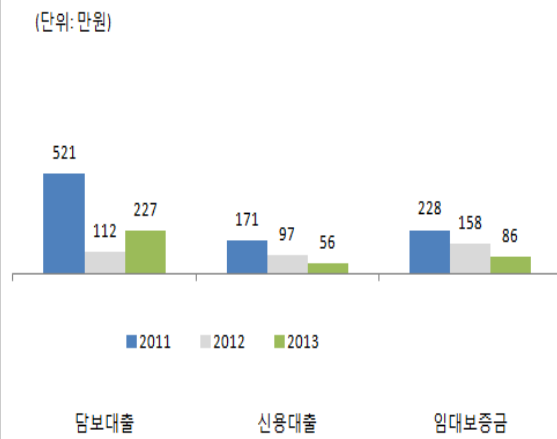
○ (구성요소별 추이) 자산측면에서는 저축액 감소, 부동산 큰 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부채측면에서는 줄어들던 담보대출이 2013년 다시 확대되고 있음

- (가계자산) 가계자산이 증가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부동산 실물자산이 큰 폭 감소하면서 증가세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
 - 금융자산(저축액+전월세보증금)은 금융저축의 증가폭 감소로 증가세가 위축되고 있음
 - 반면 부동산 중심의 실물자산은 2011년 1,246만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침체되다가 2013년 들어 445만원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
- (가계부채) 전체적으로 2011년 하반기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되다가 2013년 담보대출의 증가로 증가폭이 다시 확대
 - 금융부채(담보대출+신용대출) 증가폭이 2012년 가계부채종합대책(2011.7월 시행)으로 축소되었다가 2013년 담보대출의 증가에 힘입어 다시 증가세
 - 한편 임대인의 임대보증금은 전세가격 급등으로 인해 2011년 228만원 빠르게 증가하다가 점점 월세(반전세) 제도가 확대되면서 전세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증가폭이 축소

< 가계자산 구성요소 연도별 증감 >



< 가계부채 구성요소 연도별 증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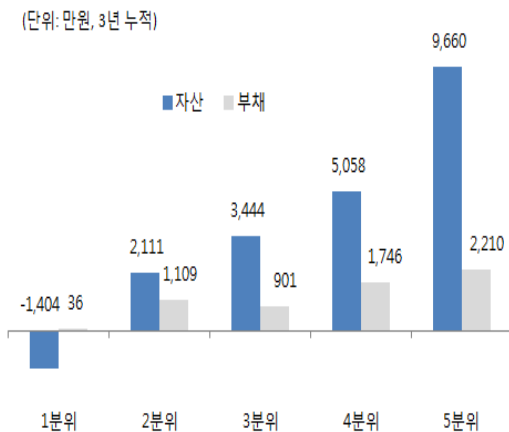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 : 1) 2010년 2.28, 2011년 이후 3.31 기준.
 2) 신규 추가자산 항목 조정.

2. 가계 재무상태 변화의 특징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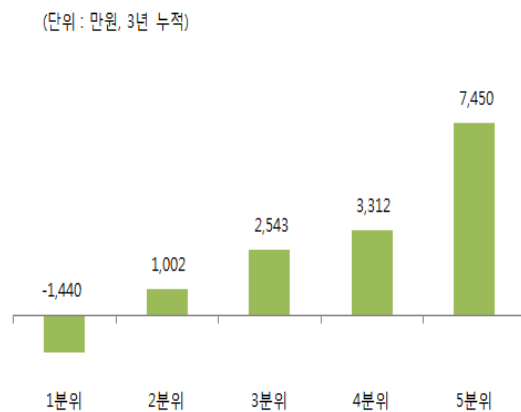
① (소득분위별) 소득이 높은 가계와 그렇지 못한 가계 간의 순자산 증가폭에 차이가 커지면서 '부(富)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음

- (가계 자산·부채) 2010~13년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자산과 부채 모두 증가하나 특히 자산의 경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 자산의 경우 1분위는 1,404만원 감소하였지만 2분위부터는 분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폭이 커지며, 특히 5분위 증가폭은 4분위보다 약 2배 수준
 - 부채의 경우 전분위에 걸쳐 증가하며 분위가 높을수록 증가폭이 커지고 있으나 자산의 증가폭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
- (순자산) 2010~13년 순자산 감소를 보인 1분위를 제외하고 분위가 높을수록 더 큰 폭으로 순자산이 증가
 - 1분위 가계의 경우 부채 증가는 미미하였지만 자산이 오히려 큰 폭 감소하면서 순자산이 1,440만원 큰 폭으로 감소
 - 2분위부터 가계 자산 증가세에 힘입어 순자산이 증가하고, 특히 5분위의 경우 저축액 등 금융자산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무려 7,450만원 증가

< 소득분위별 가계 자산·부채 증감 >



< 소득분위별 가계 순자산 증감 >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발표 『가계금융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현대경제연구원(HRI)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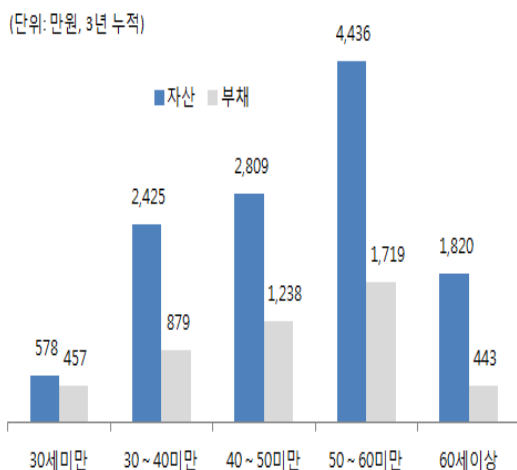
- 주 : 1) 2010년 2월말에서 2013년 3월말까지의 변화.
2) 신규 추가자산 항목 조정.

2) 연도별 누적 순자산 변화는 <참조 2>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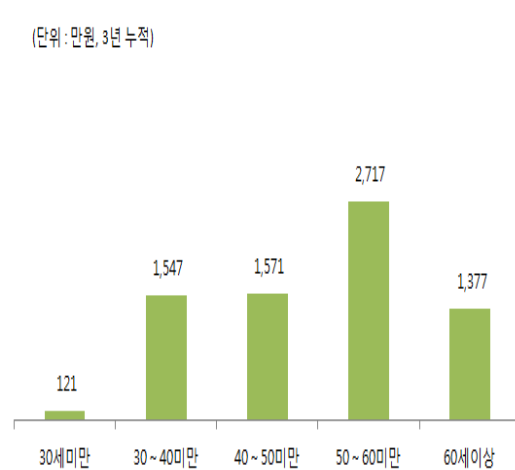
② (가구주 연령별) 30세미만 가구주 가계 등 상대적으로 취약 연령 계층 가계의 순자산 증가가 매우 어려운 상황

- (가계 자산·부채) 2010~13년 전 연령층에 걸쳐 자산과 부채가 증가하였지만, 특히 주 경제 활동층인 30~60세의 자산 증가가 두드러짐
 - 자산의 경우 30세 미만의 경우 578만원 증가에 그치고 있지만 50대의 경우 30세 미만 보다 무려 약 8배인 4,438만원 증가
 - 부채의 경우도 전분위에 걸쳐 증가하고, 주 경제활동 연령층일수록 증가폭이 크나 자산의 증가폭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
- (순자산) 2010~13년 주 경제활동 계층인 30~50대 가구주의 순자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 청년층 가구주 가계의 순자산 증가가 미흡
 - 취업불안 등으로 자산증가가 어려운 30대 미만의 경우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보증금 부채가 늘어나면서 순자산이 121만원 증가 그침
 - 40대~50대의 경우 2012년 금융저축액 및 전월세보증금 증가 등으로 순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
 - 부동산 보유 비율이 높은 60대 이상 가구주 가계의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월세보증금 증가에 힘입어 비교적 큰 폭 증가 가능

< 연령별 가계 자산·부채 증감 >



< 연령별 가계 순자산 증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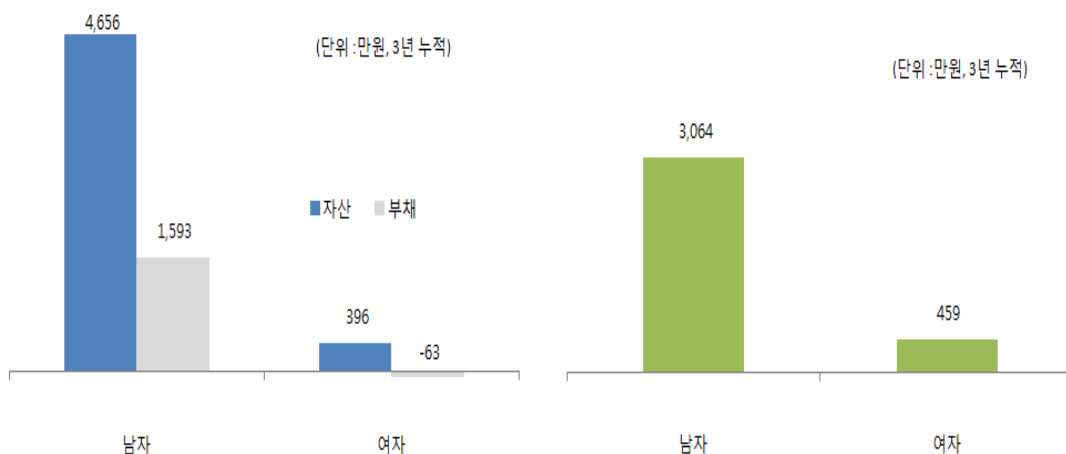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발표 『가계금융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현대경제연구원(HRI)에서 재구성.

주 : 1) 2010년 2월말에서 2013년 3월말까지의 변화.
 2) 신규 추가자산 항목 조정.

③ (가구주 성별) 가구주 남자 가계에 비해 여자 가계의 자산 증가가 미흡하여 순자산 증가가 매우 어려운 상황

- (가계 자산·부채) 2010~13년 가구주 남자의 경우 자산, 부채 모두 큰 폭 증가하였고, 여자의 경우 자산 증가가 미흡한 반면 부채가 오히려 감소
- 자산의 경우 가구주 남자는 저축액 등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4,656만원 증가하였지만, 가구주 여자는 396만원 증가에 그침
- 부채의 경우 가구주 남자는 1,593만원 비교적 큰 폭 증가하였지만, 여자는 오히려 63만원 감소하고 있어 가구주 여자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해지고 있음을 추측
- (순자산) 2010~13년 남자 가구주 가계의 순자산이 여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구주 성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진행
- 가구주 남자의 경우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3,064만원 증가하고, 여자인 경우 부채 감소에도 자산증가가 매우 미흡하여 459만원 증가에 그침
- 연도별 누적 순자산 추이에서 가구주 여자 가계의 순자산이 점점 위축되고 있으며, 앞으로 가구주 성별 간에도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

< 가구주 성별 가계 자산·부채 증감 > < 가구주 성별 가계 순자산 증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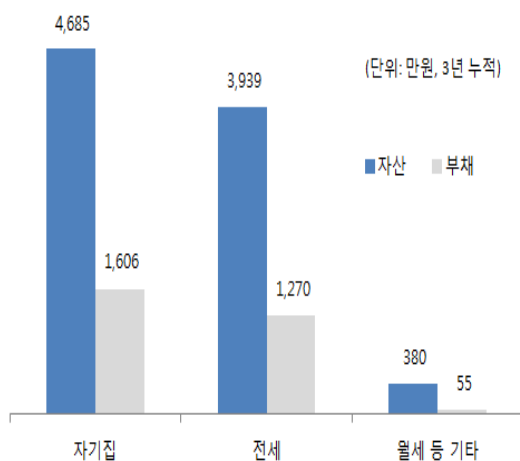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발표 『가계금융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현대경제연구원(HRI)에서 재구성.

주 : 1) 2010년 2월말에서 2013년 3월말까지의 변화.
 2) 신규 추가자산 항목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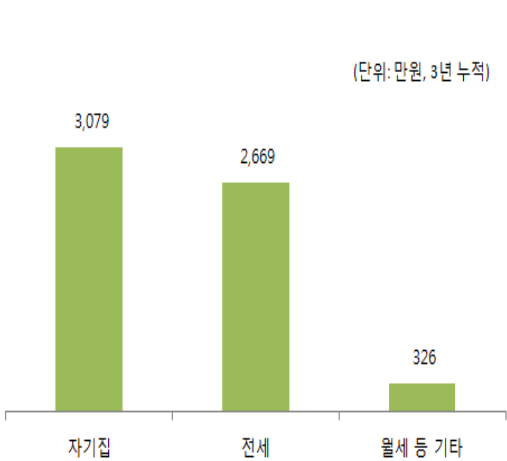
④ (입주형태별) '자기집'과 '전세'의 경우 순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월세 등 기타'의 경우 순자산 증가가 매우 어려운 상황

- (가계 자산·부채) 2010~13년 '자기집'과 '전세'의 경우 자산과 부채 모두 증가하였지만 자산의 증가가 월등히 큼
 - 자산의 경우 '자기집'의 경우 4,685만원 증가하고, 실물자산 감소가 없는 '전세'도 3,939만원 증가하고 있지만 '월세 등 기타'의 경우 380만원에 그침
 - 부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의 증가로 '자기집'과 '전세'의 부채 증가폭이 크나 자산의 증가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며, '월세 등 기타'의 경우 부채를 거의 늘리지 않음
- (순자산) 2010~13년 '자기집'과 '전세' 가계의 순자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월세 등 기타'의 경우 순자산 증가가 매우 미흡
 - '자기집'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위축되기는 했지만 금융저축액이 크게 늘어난데 힘입어 3,079만원의 큰 폭 순자산 증가
 - '전세'의 경우 금융저축액을 늘리면서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2013년 임대보증금 증가로 소폭 감소하여 2,669만원 증가
 - '월세 등 기타'의 경우 부채 증감은 거의 없으나 높아진 월세 부담으로 인한 자산 축적이 어려워 순자산 증가폭이 326만원 증가에 그침

< 입주형태별 가계 자산·부채 증감 >



< 입주형태별 가계 순자산 증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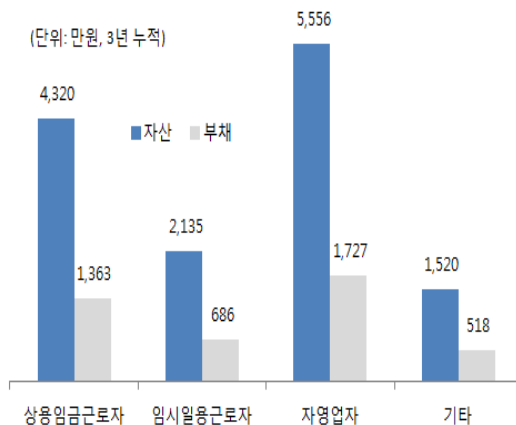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발표 『가계금융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현대경제연구원(HRI)에서 재구성.

주 : 1) 2010년 2월말에서 2013년 3월말까지의 변화.
 2) 신규 추가자산 항목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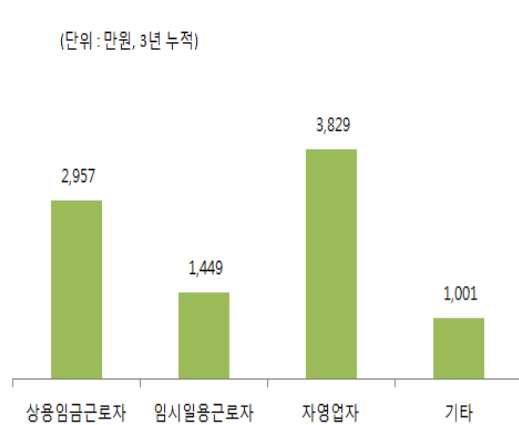
⑤ (종사상지위별) 상용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의 종사자들의 순자산 증가폭이 임시일용근로자 등 보다 큼

- (가계 자산·부채) 2010~13년 ‘자기집’과 ‘전세’의 경우 자산과 부채 모두 증가하였지만 자산의 증가가 월등히 큼
 - 자산의 경우 상용임금근로자가 저축액 증가로 4,320만원, 자영업자의 경우 실물자산 증가로 5,556만원 큰 폭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아 기타의 경우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음³⁾
 - 부채의 경우 전반적으로 자산 증가폭에 비해 미미하나 상대적으로 상근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증가폭이 큼
- (순자산) 2010~13년 전 종사별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나 상근근로자, 자영업자의 상승이 임시일용근로자, 기타 등 보다 증가폭이 큼
 - 상용임금근로자의 순자산이 2012년 금융저축액의 증가에 힘입어 2,957만원 큰 폭 증가하였으나 2013년 증가세가 둔화
 - 자영업자의 순자산 증가폭이 상용임금근로자를 상회하는 3,829만원 이룸
 - 임시일용근로자와 기타 근로자의 경우 자산의 증가폭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순자산 증가폭이 작음

< 종사상지위별 가계 자산·부채 증감 >



< 종사상지위별 가계 순자산 증감 >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발표 『가계금융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현대경제연구원(HRI)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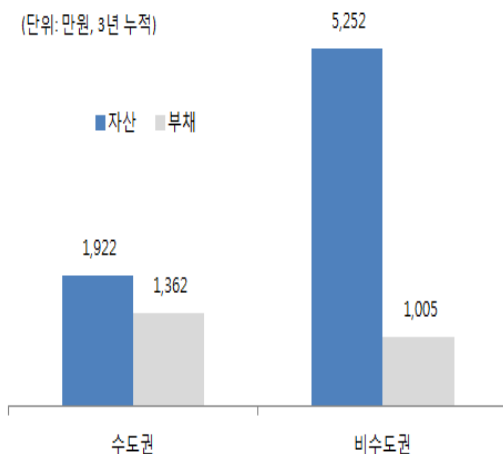
주 : 1) 2010년 2월말에서 2013년 3월말까지의 변화.
2) 신규 추가자산 항목 조정.

3) 2012년 이후 자영업자의 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자산 항목에 권리금, 자영업 설비 및 재고자산 등이 추가된 것을 기술적으로 완전히 조정하기 어려운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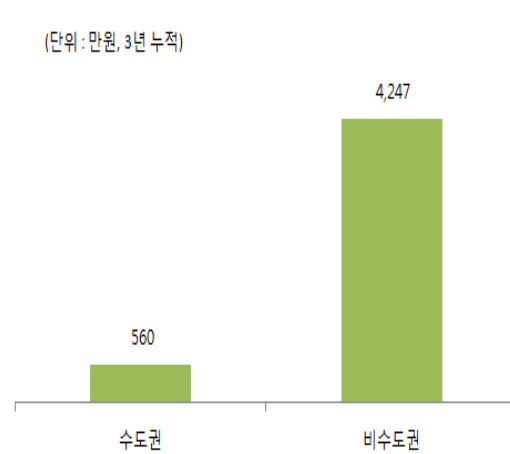
⑥ (지역별) 부동산시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비수도권 가계의 순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수도권 가계의 순자산은 매우 미흡

- (가계 자산·부채) 2010~13년 부동산시장 호황을 보인 비수도권 가계의 경우 수도권 가계 보다 자산의 증가폭은 더 커지만 부채 증가폭은 작음
 - 자산의 경우 수도권 가계가 1,922만원 증가하였지만 비수도권 가계의 경우 수도권의 2.5배가 넘는 5,252만원 증가함
 - 부채의 경우 수도권 가계가 1,366만원, 비수도권 가계가 1,005만원으로 자산 증가폭이 작은 수도권이 오히려 더 큼
- (순자산) 2010~13년 부동산시장 침체를 겪고 있는 수도권 가계 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는 비수도권 가계의 순자산이 무려 약 8배 증가
 - 2012년 큰 폭 증가한 수도권 가계의 순자산이 2013년 주택매매가격 하락, 임대보증금 상승 등으로 하락함에 따라 560만원 증가에 그침
 - 반면 비수도권 가계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의 비수도권 부동산시장 호황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4,247만원 큰 폭 증가

< 지역별 가계 자산·부채 증감 >



< 지역별 가계 순자산 증감 >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발표 『가계금융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현대경제연구원(HRI)에서 재구성.

주 : 1) 2010년 2월말에서 2013년 3월말까지의 변화.
 2) 신규 추가자산 항목 조정.

○ (종합) 최근 자산 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 가계를 중심으로 명목 순자산 증가가 매우 미흡하며, 재무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지고 있음

- 가계부채 확대뿐만 아니라 실물자산 위축으로 인하여 가계자산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순자산 증가가 미흡
 - 소득분위별로 1분위 가계, 가구주 연령별로 30세 미만 가계, 가구주 성별로 여자 가계, 입주형태별로 '월세 등 기타' 가계, 종사상지위별로 임시일용근로자와 '기타' 가계 등이 취약 가계임
 - 자영업자의 순자산이 예상외로 크게 증가한 것은 자산규모별로 신규 추가 자산항목(권리금, 시설, 재고자산 등)을 조정하였지만, 성격상 이러한 자산들이 자영업에 많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
 - 지역별로 부동산 침체와 가계부채 문제가 큰 수도권 가계의 재무악화 현상이 비수도권 가계보다 더욱 심각하게 진행
 - 최근 자산대비부채비율, 처분가능소득대비부채비율 등 각 가계 건전성지표들이 악화되는 가운데 특히 2012년 이후 취약 가계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

< 최근 3년간(2010.2~2013.3) 부분별 순자산 증감 >

(단위 : 만원)

① 소득분위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440	1,002	2,543	3,312	7,450
② 가구주 연령별	30세미만	30~40미만	40~50미만	50~60미만	60세이상
	121	1,547	1,571	2,717	1,377
③ 가구주 성별	남자			여자	
	3,064			459	
④ 입주형태별	자기집		전세		월세 등 기타
	3,079		2,669		3,26
⑤ 종사상지위별	상용임금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2,957	1,449	3,829		1,001
⑥ 지역별	수도권			비수도권	
	560			4,247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발표 『가계금융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현대경제연구원(HRI)에서 재구성.

주 : 신규 추가자산 항목 조정.

3. 시사점

- 가계 재무상태 악화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회복과 서민경제 안정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국가 성장기반이 잠식될 수 있음
 - 가계 재무상태 악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소비 침체, 연체율 및 개인파산 증가 등으로 이어지면서 실물과 금융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 소비 계층 약화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 소비진작 정책 효과 반감 등으로 실물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밖에 없음
 - 뿐만 아니라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연체율 및 개인파산 증가 등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함으로써 금융의 순기능 효과도 떨어짐
 - 특히 서민경제의 위축이 지속될 경우 국가 성장기반이 잠식될 수 있음
 - 소득 하위 분위 가계의 재무상태 악화로 인한 순자산 감소는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움
 - 30대 이하 가구주 가계의 취업난이 장기화되면 미래 국가 성장동력이 약화
 - 전세가격 상승과 높은 전월세전환율 등에 따른 월세 부담 증가로 인한 '월세 등 기타' 가구주 가계의 재무상태 악화는 미래 주택 수요기반을 침식
- 가계 실질소득 증가, 재무구조조정뿐만 아니라 특히 취약 가계와 수도권 가계 중심의 재무상태 개선이 시급함
 - 가계 실질소득 증가와 가계 및 자영업자의 재무구조 조정 등을 통한 전반적 재무상태 개선 시급
 -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의 일자리창출과 생산성제고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
 - 높아진 가계부채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뿐만 아니라 불요불급한 가계 자산 처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필요
 - 최근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기타 자산(권리금, 설비, 재고자산 등) 등을 처분할 수 있을 경우 상당 폭 개선될 수 있는 바,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시장의 개설을 검토할 필요

- 취약 가계의 재무상태 개선이 시급하고, 지역적으로 수도권 가계의 빠른 재무상태 악화 방지에 주력
 - 청년층 재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년층 사회진입 애로 상황을 풀어 그들의 특성에 맞는 사회진입 정책 지원
 - 높은 전월세전환율에 따른 월세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임대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시장금리 수준에 맞춰진 전월세전환율 시스템 도입 시급
 - 한편 지역적으로 수도권 가계의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에 주력

 - 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의 가계 재무상태 악화 현상은 부채측면에서 보다는 자산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보임
 - 분석 결과 가계 재무상태 악화 현상은 대체적으로 부채증가 보다 자산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소득 1분위 가계, 30세미만 가계, 가구주 여자 가계, 월세 가계 등 취약 가계들은 부채 증가가 커지 않지만 자산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선진국처럼 취약계층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여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
 - 국내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책은 주로 부채 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더욱 절실
 - 자산형성과 관련된 대책도 세계혜택 등에 치우쳐 있어 저소득계층의 근본적인 자산형성 및 축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개인개발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IDA) 등 저소득계층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
- * IDA는 저소득층 가구가 매월 일정 소액의 돈을 저축하면, 동일 금액을 정부나 민간후원기관에서 매칭(matching)하여 지원해 목돈마련과 빈곤탈출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

박덕배 전문연구위원 (2072-6216, dbpark@hri.co.kr)

< 참조 1 > 가계 금융조사 분석 개요

○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전국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계금융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가계의 금융과 복지와 관련한 실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2010년부터 발표하고 있음⁴⁾
 - 가계부채 등 가계재무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가구특성별 자산과 부채의 규모, 분포 및 구성 및 가계의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 필요성 증가
 - 자산 및 부채 등 저장(stock)적인 지표는 해당 해의 기준일로 파악하고, 소득과 지출 등 유량적인 지표는 전년 1년간을 기준으로 평가
- 2010년, 2011년은 전국의 1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계금융조사를 실시하고, 2012년부터는 가계금융조사뿐만 아니라 가계복지조사도 포함
 - 2012년 이후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공통부문은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자산, 부채, 소득, 비소비지출 등에 대해 조사
 - 반면 금융부문은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자산운용, 부채에 대한 인식, 노후생활 등에 대해 조사하며, 복지부문도 1만 가구를 대상으로 비목별 소비지출, 평소 경제활동상태, 개인생활 등에 대해 조사함

< 금융위기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 개요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명칭	가계금융조사	가계금융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 기준	저량: 2.28일 유량: 전년 1년간	저량: 3.31일 유량: 전년 1년간	저량: 3.31일 유량: 전년 1년간	저량: 3.31일 유량: 전년 1년간
표본 대상	1만 가구	1만 가구	공통: 2만 가구 금융: 1만 가구 복지: 1만 가구	공통: 2만 가구 금융: 1만 가구 복지: 1만 가구
주관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자료 : 각 년도의 가계금융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자료.

주 : 2012년부터 신규조사항목(권리금, 자영업자 설비 및 재고자산, 건성 및 농업용 장비, 동물 및 식물)이 추가.

4) 금융위기 이전 2007년 2006년 5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계금융자산에 대해 분석한 적이 있었으나, 금융위기 이후와는 달리 가계의 미시적 재무건전성 파악 목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분석이 부족.

- (분석 방법)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가계 평균자산과 평균부채는 늘어나는 가운데 추세 분석을 위해 신규 추가 자산항목을 조정
 - 2010년 이후 국내 가계의 평균자산과 평균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
 - 자산측면에서 저축액, 전월세보증금 등 금융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부채 측면에서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 모두 증가
 - * 금융자산 저축액은 적립식 저축과 펀드, 저축성 및 만기 시 일정금액을 수령하는 보장성 보험, 현금 예치식 저축 및 펀드,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뿐만 아니라 빌려준 돈, 불입한 껌돈 등도 포함
 - * 금융부채는 각종 금융대출, 외상 및 할부, 껌돈 미불입금 등임
 - * 임대보증금은 부동산 임대하고 받은 금액으로 향후 지불해야 될 금액임
 - 추세 분석을 위하여 2012년부터 신규 추가항목을 조정한 데이터를 사용⁵⁾
 - 2012년부터 신규조사항목(권리금, 자영업자 설비 및 재고자산, 건성 및 농업용 장비, 동물 및 식물)이 자산항목에 추가
 - 조정하지 않을 경우 2013년 3월 31일 현재 가구당 평균 총자산은 3억 2,557만원이나 조정할 경우 3억 1,456만원으로 조정됨

< 금융위기 이후 가계 재무상태 변화 >

(단위 : 만원)

	2010.2	2011.3	2012.3	2013.3
총자산	27,268	29,765	31,331	31,456
○ 금융자산	○ 5,828	○ 6,903	○ 7,834	○ 8,360
· 저축액	· 4,089	· 5,023	· 5,603	· 6,003
· 전월세보증금	· 1,739	· 1,880	· 2,231	· 2,357
○ 실물자산	○ 21,440	○ 22,862	○ 23,497	○ 23,096
· 부동산	· 20,661	· 21,907	· 22,505	· 22,060
· 기타 자산	· 779	· 955	· 992	· 1,036
총부채	4,263	5,205	5,450	5,818
○ 금융부채	○ 2,884	○ 3,597	○ 3,684	○ 3,967
○ 임대보증금	○ 1,380	○ 1,608	○ 1,766	○ 1,852
순자산	23,005	24,560	25,881	25,638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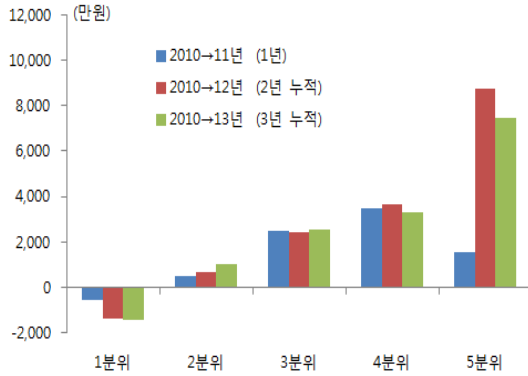
주 : 1) 기타 자산은 자동차, 회원권 등임.

2) 2012년부터는 신규추가항목을 제외할 경우의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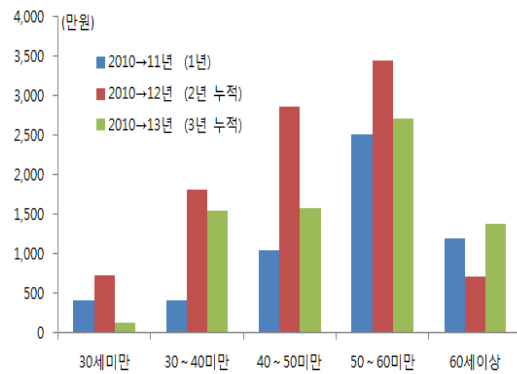
5) 2012년의 신규추가항목 자산 994만원과 2013년의 경우 자산 증가 비율에 맞춰 신규추가항목 자산을 추정.

< 참조 2 > 부문별 가계 누적 순자산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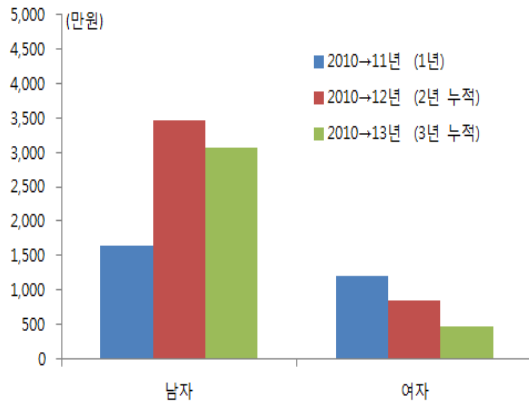
< 소득분위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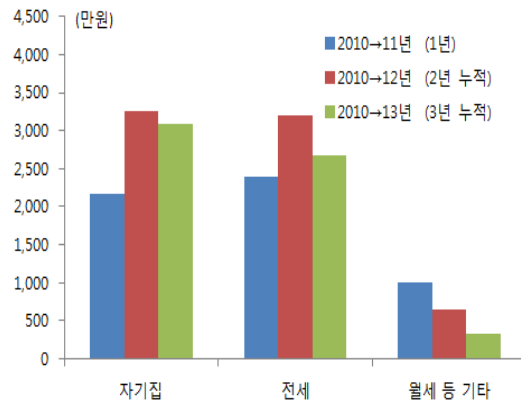
< 가구주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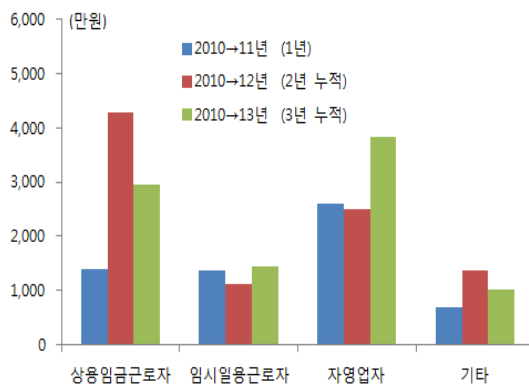
< 가구주 성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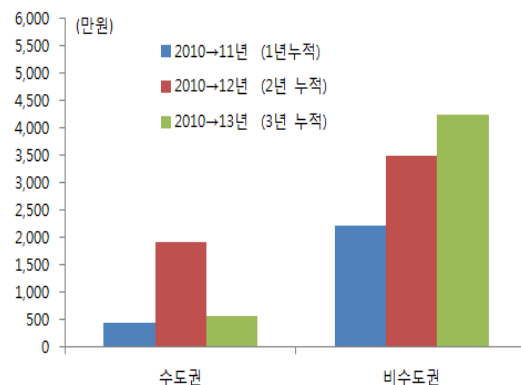
< 입주 형태별 >



< 종사자지위별 >



< 지역별 >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발표 『가계금융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현대경제연구원(HRI)에서 재구성.

주 : 1) 처분가능소득은 2012.3의 경우 2011년 소득, 2013.3의 경우 2012년 소득.
2) 자료의 한계로 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2년 이후부터 사용.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미국	2.8	3.7	1.2	2.8	0.1	1.6	1.1	2.5	4.1	2.6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1.0
일본	2.0	3.5	-2.0	-3.2	0.6	2.0	4.5	3.6	1.1	1.2
중국	7.7	8.1	7.6	7.4	7.9	7.6	7.7	7.5	7.8	7.3

주 1) 2013년, 2014년 전망치*는 IMF 2013년 10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1월 9일	1월 16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97	2.84	-0.13%p
	엔/달러	85.86	98.51	105.04	104.85	104.57	-0.28¥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3578	1.3605	0.0027\$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6,445	16,417	-28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5,880	15,747	-133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90	2.89	-0.01%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62.9	1,063.4	0.5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1,946.1	1,957.3	11.2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1월 9일	1월 16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91.95	93.98	2.03\$
	Dubai	107.99	100.38	107.88	104.06	103.01	-1.05\$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272.88	279.02	6.14\$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6	1.5	2.0	1.9	3.3	2.6	3.8
	민간소비 (%)	2.4	1.2	2.2	1.7	1.6	2.3	2.0	2.7
	건설투자 (%)	-4.7	-1.9	-2.4	-2.2	5.2	2.5	3.7	2.5
	설비투자 (%)	3.6	2.3	-6.1	-1.9	-8.2	5.8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261	163	317	481	298	397	695	4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41	441	370
	수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32	5,596	6,067
	(증가율, %)	19.0	0.5	-3.1	-1.3	0.5	3.8	2.1	8.4
	수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5	2,591	5,156	5,697
	(증가율, %)	23.3	2.3	-4.0	-0.9	-2.9	1.4	-0.8	10.5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7	2.2	1.4	1.2	1.3	2.4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2.9	3.1	3.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86	1,095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